

'낭만' 하면 떠오르는 나라 프랑스에서도 손꼽히는 지중해 최대의 휴양 도시, 니스 리비에라의 여왕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니스는 유럽인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휴양지 중 하나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청명한 하늘, 한겨울에도 영상 10℃를 넘는 기온, 양호한 자연 환경,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 니스에는 사시사철 관광객이 몰려든다. 글 신선미 (저스트알(주) 투자자문팀) 사진 김우희 (저스트알(주) 상무)



니스, 지중해의 바람과 파도로 ‘국제 기업 도시’ 명성에도전



니스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한 시미에 지역은 니스의 유행을 주도하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노트르담드 시미에와 대형 목욕탕, 원형극장 등 로마의 유적지와 마티스 미술관이 있다. 니스의 축제 중 하나인 재즈 페스티벌이 매년 7월에 이곳의 원형극장에서 열린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닌 관광 휴양 도시, 니스 니스는 프랑스 남동부에 코트다쥐르(Côte d'Azur) 지역에 위치한 휴양 도시로 코트다쥐르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프랑스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도시다. 또한 니스는 파리 다음으로 컨벤션이 많이 열리는 지역이다. 그래서 니스에는 특급 호텔을 비롯해 무려 190개의 호텔이 들어서 있다. 또한 입지적 측면에서도 공항과 10분 거리에 불과해 외부 관광객이 방문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하다.

일찍이 마티스와 샤갈도 니스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천혜의 자연 환경 덕분에 유럽 최고의 휴양 도시로 각광받고 있지만, 니스의 관광 산업은 자연 환경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니스는 수많은 관광객을 위해 1년 내내 전시회, 음악회, 카니발 등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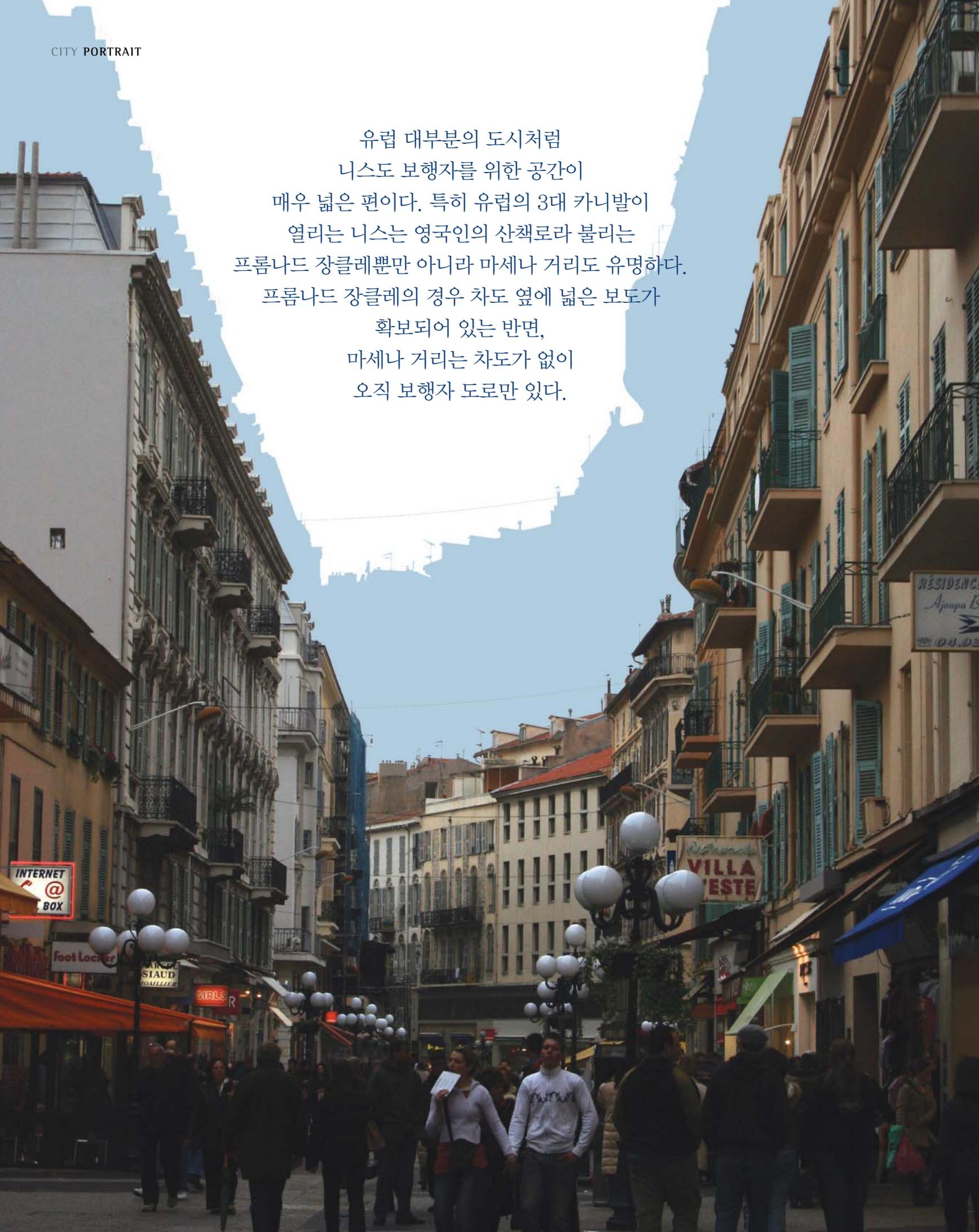
매년 2월에 열리는 니스 카니발은 올해로 122번째를 맞았다. 2주간 개최되는 카니발 때문에 니스를 방문하는 사람이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니스 인구의 3배가량 되는 인파가 방문하는 셈이다. 이처럼 카니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카니발에 참여하고 있다.

매일 살레야 광장(Cours Saleya)에서는 갓 수확한 과일과 야채, 꽃을 파는 시장이 열리는 모습도 카니발 같아 보인다.



유럽 대부분의 도시처럼
니스도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매우 넓은 편이다. 특히 유럽의 3대 카니발이
열리는 니스는 영국인의 산책로라 불리는
프롬나드 장클레뿐만 아니라 마세나 거리도 유명하다.
프롬나드 장클레의 경우 차도 옆에 넓은 보도가
확보되어 있는 반면,
마세나 거리는 차도가 없이
오직 보행자 도로만 있다.



니스 국제 업무지구 니스에는 관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니스 인근의 기업도시 소피아안티폴리스의 성공과 더불어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한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한창이다. 접근성 및 도시 인지도에 있어 사실 소피아안티폴리스보다 더 유리한 니스에 업무지구를 만들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도 이해가 간다.

니스는 제2의 국제공항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목표가 있다. 이에 따라 니스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눠 개발계획을 수립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Nice Arenas (ARENAS BUSINESS CENTER)는 총연면적 19만 5000㎡에 조성될 업무지구로 이미 건축된 업무시설이 11만 4000㎡, 공사 중인 4만 1000㎡에는 총 175개 객실의 호텔 두 개 동과 멀티플렉스 시네마가 입점할 예정이다.

Nice Merdia는 도심 내 비즈니스 허브 지구로 총 20만㎡ 면적 중 1단계 4만 6000㎡ 규모의 오피스가 2006년 완공된다. Nice Merdia 역시 니스 공항에서 500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 복합개발지구로 계획된 이 지역은 오피스(최상급, 일반), 연구소, 상점, 식당, 호텔, 리조트 등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Nice Côte d'Azur International 지구는 해변을 따라 개발되는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다. 10만㎡의 규모로 2015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업무, 무역, 호텔, 상점 등이 입점할 예정이며 2006년까지 기반시설 계획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7년까지 측량을 마치고 2009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막연히 니스를 떠올릴 땐, 파도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휴양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각종 카니발과 컨벤션, 도시개발 사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니스는 지난 100년 동안 지중해 관광의 핵심, 관광객 방문 1위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가지기에 충분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

